

# 대입정보 매거진

2012 August Vol.01

# 8

## 뉴스 News



대학입학 주요일정

GO

대입주요 뉴스

GO

## 대입정보 Information



수시모집  
방향을잡고 공부하기

수시모집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GO

입학사정관제

달라지는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모집 선발 비중 및 전형 모집인원 확대 등

GO

정시모집  
방향을잡고 공부하기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능 우선  
발전형으로 지원 하는것이 이득!

GO

## 상담 Advisement



대입상담 주요사례

수시 모집에서의 6회 지원 제한

6회 지원 제한의 배경 및 설명

GO

## 교육 Education



고교 진로·진학 상담  
우수사례

자양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고민과 도움이 된  
진로상담방

GO

고교대학 연계  
우수사례

한양대 / 온라인모의전형

국내 최초 화상 모의전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

GO

별별 학교소개  
전북대학교

GO

칼럼  
진로진학상담의 중요성

GO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발행처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동로25(영파동 304) 한국연구재단 서울청 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Tel 02163383-6200 Fax 02163383-6210 발행인  
기재 편집자인 Blue&Creative  
COPYRIGHT© 2012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 &gt; 고교대학 연계 우수사례

## 한양대, 국내 최초 입학사정관 화상 모의전형 체험 프로그램 Go Together 실시

고교생 대상 입학사정관전형 모의 전형 체험 프로그램

전국 군·읍·면·도 소재 200여개 고교, 1400여명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온라인 전공탐색 프로그램으로 확대



자세히보기 Click

한양대학교는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모의전형 체험 프로그램인 Go Together를 2012. 2월부터 주2회(월, 금) 상시 간 실시하고 있다. 한양대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전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취약 고교, 낙후 지역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획됐다.

Go Together는 전국 군·읍·면 소재 고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었으며 최근 도 소재지 고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되는 모의 전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취약, 낙후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덜어주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화상 모의 전형을 통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컨설팅을 억제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개별고교 단위로 담당교사를 통해 입학사정관팀 담당자에게 모의전형을 신청하고, 입학사정관 대표전형인 미래인재전형 모의전형 신청 및 사전 서류 심사를 위한 제반 서류를 입학사정관팀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양대는 1년 동안 70회, 200여개 고교, 총 1400여명의 학생들에게 화상 모의전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국 70여개 고교를 대상으로 모의전형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모의전형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모의전형 이후에는 곧바로 담당 입학사정관에게 화상 모의 면접 전에 평가한 서류평가결과와 현장에서 진행된 면접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 전형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는 Go Together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군·읍·면 소재 460여개 고교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그 동안 다수의 입시 프로그램들이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지역 거점 학교들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면, 한양대는 취약 고교, 낙후 지역의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자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 고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인천 백령도 백령고, 전남 비금도 오초고, 전남 원도 원도고, 제주 오현고 등 도서지역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였다.

지난 2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정은 학생(강원 횡성고, 3학년)은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으며 분명한 목표 의식이 생겨 공부하는 마음가짐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현재 주 1회 20여명의 학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군·읍·면 소재 고교의 열민 호응으로 3월 중순부터 주 2회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도 단위로 확대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 후 광역시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온라인 전공 탐색·체험 프로그램등 온라인을 활용한 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 &gt; 고교 진로진학 상담 우수사례

## 자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사례 및 진로사랑방 운영사례

자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윤미향



전국대학교 인구에 위치한 자양고등학교는 전체 학급 45class로 서울시내에서는 제법 큰 규모의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시내 최고급 수준의 자활화합실 양현재를 비롯해 기타 학교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학생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베푸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양고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교 학생이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진로흥미검사와 진로적성검사**입니다. 물론 이 검사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실시되지만 자양고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은 검사 이후에 진로설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 1 진로흥미 및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음성인식자동차, 승무원 매너스쿨, 비라스타, 광고제작, 주얼리디자인, 등의 직업체함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대법원, 규장각, 국회 등 각종 공공기관 체험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2 진로흥미와 진로적성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과 직업흥미 사이에 갭 좁혀나가기 집단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WANT와 REAL WANT(원하는 것과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것은 수의사인데, 진로적성(혹은 다중지능)은 수리논리력이 낮아서 알날이 불안했던 한 여학생은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었고 자신이 수리논리력은 낮은 대신 자연친화력, 대인관계능력에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이 학생은 동물보호단체인 <카리>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동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동물치료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3 학생들의 적성(혹은 다중지능) 강점을 개발하고 진학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결 프로그램들 진행

글쓰기를 좋아하고 표현능력이 매우 좋은 학생들을 묶어서 외부에서 작가를 초빙하여 (글쓰기 방과후 교육활동)을 병행 동안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몰리보게 높아졌으며 지금은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스토리는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자양고에서 맹활약 중인 우수 동아리의 모태는 거의 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올 여름 방학에는 색채능력과 공간지각력이 높은 학생들을 묶어서 미술관 기행, 건축을 기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랑할 자양고 프로그램 중 베키는 **진로사랑방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사랑방**은 단어 그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들어 오셔서 진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사랑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짝 엿볼까요?

사랑방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진로이음 활동입니다. 우리학교 사랑방 게시판에는 같이 **벽화 그리기**로 **생활복 디자인팀 모집 자기주도학습 같이 진행할 사람 팀스 초급반 모집**합니다. **토끼 해부 실험 음악치료-웹스터 실험** 여수엑스포 설문응답등의 문구들이 쓰여 있고 그 아래에 같이 동참할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방에서는 학생들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체험 혹은 스터디 및 연구보고 등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로이음으로 뭉쳐진 학생들은 체험 계획서(혹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를 얻은 후 활동을 전개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런 활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진로사랑방은 곧 진학사랑방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세히 보기 Click



## Interview

### 2학년 학부모 권OO

사랑방은 학생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들 진로 때문에 늘 고민이 많던 우리 엄마들의 소독의 장**이기도 합니다. 부모자녀 소독 프로그램, 입학사정관과의 간담회, 진로아카데미, 학습코칭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가 우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학년 학생 정OO

요즘은 입시가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만약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자문을 청고 진로를 설계하고 활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진로교육이 생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 3학년 담임교사 이OO

사랑방에서 진행되는 진로프로그램 자랑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수대학에 입학한 졸업생들을 초청해(진로특례, 입사특례, 면접특례)로 별에서 태어난것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꼭 필요한 것을 풀리기 쉬운 세션한 것들까지를 선배들이 1:1로 관해해주시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방학 중에도 사랑방은 늘 오픈하며 멘토링 프로그램(한국능력시험, 고난이도 문제풀이)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이 진행됩니다. 방학 중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사랑방을 관리해주셔서 학생들이 사랑방에서 독서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도 진행하기 때문에 진로사랑방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양고 진로사랑방**의 시계는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의로

## 교육 &gt; 별별학과소개

## '하이브리드형'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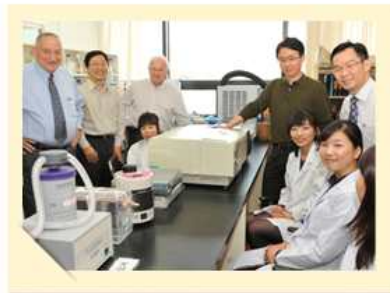
###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는 1993년 설립된 학과다. 모든 학생들이 각종 부품소재를 만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학과의 목표다. 고분자·나노공학과에 들어오면 생체·의학분야 정보·전자분야 나노·에너지분야 등 다양한 공학을 아우르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분자·나노공학과는 특징은 융합과 통섭(統攝), 교수들의 출신 학과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연구 분야도 각각 다르다. 학생들은 입학 후 자신에게 맞는 전공,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고분자·나노공학과는 매년 교수 1인당 평균 10편 이상의 논문을 산출하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학과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연구 논문이 없는 교수는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LCD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이승희 교수는 지난 2008년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수여하는 펠로우를 받았고, 올해도 이 학회에서 세계 8명만이 받은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ID는 미국 디스플레이 행사 중 최대로 꼽히며, 회원 60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펠로우는 SID 전체 회원의 0.1%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2012년 현재까지 펠로우로 선정된 한국인은 이 교수를 포함, 3명뿐이다.



지난 2009년 고분자·나노공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선정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대형과제인 1유형(전공·학과 신설)과 3유형(해외 석학 초빙 연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로부터 1유형에 150억 여원을 지원받아 50명을 정원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BIN 융합공학과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3유형에서도 10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고분자·나노소재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고분자·나노공학라에 들어오면..

자세히보기 Click

2학년까지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을 실용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공부를 배운다. 이후 생체공학, 전기·전자 재료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분야 등의 수업을 이수한다. 수업 중 반 이상이 영어 강의로 진행돼 세계적인 인재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장학금·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고분자·나노공학과에 입학한 3·4학년 학생들은 4명 중 1명 꼴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제공받는다. 덕분에 동(同)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졸업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교의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은 미국·포르투갈·시드니·중국·일본·스웨덴 등 세계 곳곳에 논문 발표를 위한 여행경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졸업생들은 KOC, LG, CJ, 한솔제지, 애경, 하이닉스반도체, 효성 등 국내 굴지의 기업에 입사에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나노공학과와 융합성을 실려 의학, 치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을 위해 나노·고분자학과에서는 별도로 전문대학원 진학 프로그램도 마련해놓고 있다.

※ 학과소개를 희망하시는 분은 메일(@kuc.or.kr)로 학과소개 글을 보내주세요!



메인으로 | 주요일정 | 주요뉴스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입학사정관제 | 고교연계 | 진로·진학상담 | 학과소개 | 칼럼 | 상담사례

교육 &gt; 칼럼

# 대교협의 대입정보 매거진 재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강 문 식

- 계명대학교 입학처장  
-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최근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와 수능개편 등 입시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수 위주의 진로진학 상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올바른 진로진학 상담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대입정보 매거진을 재창간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축하와 아울러 대입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진학 상담은 학생 개인으로 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찾는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사회적으로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발전적 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앞으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여러 교육활동이 현명한 진로진학 선택을 동반하여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입정보 매거진의 모든 지면이 대학과 고교, 학부모 등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매거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대입정보 매거진이 앞으로 독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매체로 성장하고 또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gt; 대입주요뉴스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 강화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에서 인성평가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은 긍정적으로 평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회장 안상헌) 및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 66개 대학과 함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성적,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존에도 인성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였으나,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성평가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5일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300여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에서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 사항을 핵심 요소별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연계하여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핵심 인성 요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이와 관련, 학생들이 학교 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징벌적 사항을 파악해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인성평가 강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세히보기 Click](#)

## 자기소개서

대교협·입학사정관협의회와 자기소개서공동양식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며,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 대학에서는 이 문항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인성 관련 신설 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대학의 판단에 따라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

## 교사추천서

정부재정지원 대학 중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11년 35개 대학 → 12년 50개 대학 내외) ※대학의 판단에 따라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불가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함	탁월함
	3학년전체	계열전체	학급전체						
1. 책임감									
2. 성실성									
3. 준법성									
4. 자기주도성									
5. 리더십									
6. 협동심									
7. 나눔과 배려									

## 면접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 고교 정보시스템 및 고교 프로필

고교의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은 학생 평가 시 고교의 인성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학생부에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이 기재되면 낙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인으로 | 주요일정 | 주요뉴스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입학사정관제 | 고교연계 | 진로·전학상담 | 학과소개 | 칼럼 | 상담사례

뉴스 > 대입주요일정

# 대학입학 주요일정

자세히보기 Click

- ▶ 정시 학생부 작성일 : 2012. 12. 1(토)
- ▶ 수능 시험일 : 2012. 11. 8(목)
- ▶ 성적 통지일 : 2012. 11. 28(수)



## 수시모집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	원서접수 1) 수시 1회차(수능 이전) 접수 : 2012. 8. 16(목) ~ 9. 11(화) 중 / 3일 이상 2) 수시 2회차(수능 이후) 접수 : 2012. 11. 12(월) ~ 11. 16(금) 중 / 3일 이상 전형기간 2012.9.6(목)~12.3(월)(89일)
합격자 발표	2012. 12. 8(토)까지
등록기간	2012. 12. 11(화) ~ 13(목) / 3일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2012. 12. 17(월) 21시까지 / 5일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2. 12. 18(화)

## 정시모집

접수기간	가, 나, 가나군	2012. 12. 21(금) ~ 26(수) / 6일
	다, 가다, 나다, 가나다	2012. 12. 22(토) ~ 27(목) / 6일
전형기간	가군	2013. 1. 2(수) ~ 1. 15(화) / 14일
	나군	2013. 1. 16(수) ~ 1. 25(금) / 10일
	나군	2013. 1. 26(토) ~ 2. 4(월) / 10일
정시등록기간		2013. 2. 5(화) ~ 8(금) 4일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2013. 2. 9(토) ~ 2013. 2. 20(수)까지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13. 2. 9(토) ~ 2013. 2. 21(목)까지
추가모집		2013. 2. 22(금) ~ 27(수)
추가모집등록마감		2013. 2. 22(금) ~ 28(목)



대입정보 &gt; 수시모집

## 수시모집! 방향잡고 공부하기



**수시모집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 이유는 1 수시모집인원이 많다는 점(2013학년도 수시모집 인원 약 69%인 2,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총원 합격자도 정시모집 지원 금지로 정시모집 지원률이 높아진 것이 예상)라는 점 3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 중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적어지는 점 (2012학년도 입사에서 주종대 수시모집 평균 등록률만 72% → 87%) 4,2013학년도 입사부터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가 6회로 개편되어 경쟁률이 하락하여 합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5,재학생들의 경우 수능 시험에 강한 몰입성을 피하여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점 6,4은 수능에 따른 정시모집 지원의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 1. 수시모집 선발 인원 증가

2013학년도 4차제 대학의 수시모집은 총 모집인원(375,695명)의 62.9%인 236,349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97.1%인 139,346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전년도에 비하여 1,385명이 감소하였지만 **선발 비율**은 62.9%로 **0.8% 증가**하였다. 감소 인원은 대부분 정원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원 내에 해당되는 일반고 학생들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기간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은 역시 최소화될 것이다.

반면 **정시모집**은 전년도에 비하여 5,659명이 감소하였고 **선발 비율**도 0.8% 감소하였다. 수시모집의 **선발 비율**은 더 증가하였고, 정시모집의 인원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학년도 4차제 대학의 총 모집인원은 375,695명으로 2012학년도 382,730명에 비해 7,035명 감소된 인원을 선발한다. 정원내 모집인원 감소는 구조 조정을 통한 모집인원 감소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정원외 모집인원 감소는 **고등학교 졸업 사형명 개정** '09.10.7에 따라 특성고와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상한이 5%에서 3%로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2.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정시유망자모집 지원 금지 및 지원 횟수 6회 제한

2013학년도 4차제 대학의 수시모집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을 두었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기간

모집시기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마감	미등록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수시	2012. 12. 17(월) 까지	2012. 12. 18(화) 까지

출처 :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보도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12.12)

전년도와 다른 점은 수시모집 충원 합격자도 최초 합격자처럼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수시모집에 불 합격 없이 지원하거나 하향시합을 하는 경우 남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수시모집에 복수모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 시 **대학입학전형사정관합법위원회**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화 된다.

또한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험생들이 **최대 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2011년 12월 22일(화) 발표) 수시 모집 6회 제한은 1.전반적으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는 중위권 대학에 입학하는데 절충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대학별을 극심한 분차직전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학별로 지구적 차원에서 학생 유치에 위한 모집요강 수정이 예상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유형과 전형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3.수시모집에 있어서 **전학전형과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정시모집에서 복수모 선발된 상황이 수시모집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유형을 찾아서 알아나 않은 준비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 수능모의고사(9월과 9월 대우모의평가 성적, 3월/4월/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성적, 전년도 합 · 불 자료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의 정시 및 추가 모집 지원 금지, 수시모집 지원 6회 이대로 제한 등은 수시모집에서 충원 인원을 더욱 많이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더욱 줄어들어 정시모집의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대입의 큰 흐름은 수시모집이므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모집에 지원**을 해야 한다.

### 3. 수시모집 지원은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가?

수시모집 지원은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수시모집 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사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우수자 전형이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는 논술고사 전형, 적성고사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찾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준비하고 지원**하면 된다.

수시모집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학생부 성적에 모의고사 성적에 비하여 어느 정도 우수하냐?
-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아 정시에서 지원 가능권은 어느 정도인가?
- 학생부 성적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모집단위) 합격권에 도는가?
-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 등)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가?
- 다른 영역에 비하여 현어나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저조한가?
- (면접)면접 영역에 외국어와 다국어 성취 향하여 했는가?
-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 막하거나 성적의 기록이 심한가?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문제는 누가 논술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지, 누가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지, 누가 입학사정관제 전형 유형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 성적우수자 전형이나 중위권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준비, 포트폴리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대입 전략의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신 수시 지원은 6회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수시 지원의 합격선은 분명히 없다는 점 등 때문에 과도하게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합격 가능 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증대되어, 여기 자기 수시모집 대학에 **몰지매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마치 많은 낚시 줄을 던져 놓으면 손가락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오해상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워한다. 그러나 대학 입사에서는 오해상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수시모집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은 6회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곧 실력 좋은 학생은 여러 군데를 합격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합격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입 수시모집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공부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65만 수험생이 다 함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백만 또는 동급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시모집할 수 록 적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금년에는 수시모집 미등록자들의 충원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대입 반수생이 증가**한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정시모집에서의 합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므로 수시모집에서 합격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한다. 필자의 진학도 경향에 비추어 보면 동일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에서는 불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수시모집 지원에서는 합격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결국 수시모집의 적정 지원 합격이 정시모집에서는 상향 지원 합격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금년에 수능 시험 문제가 이보다 볼 수능으로 위자므로 수능 대학을 공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수능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나쁜 점수가 향상되었는가? 나의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할 하기 때문에 점수는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나의 성적도 백분위는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쉬운 볼 수능이 반박력을 상실하여 정시모집 지원 시 대충만 볼 수도 있다. 대학 입사의 합격선인 점수가 아니라, 결국은 세력이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목표 대학을 과도하게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욕심이다. 따라서 수시모집 지원 목표 대학은 현재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비추어 설정해도 결코 하향 지원이 아니다.

논술 실력이 특출하거나 어학 또는 수학 과학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 탁월한 학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범한 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에 기준을 두고 수시모집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정시모집보다 1단계만 높아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수시모집 지원의 제1원칙**이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1등급~3등급 대 초반인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 중심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자. 논술 전형 중심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3등급 대 후반~4등급 후반까지인 수험생들은 적성고사 전형 중심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자. 적성고사 성적 전형의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이 없다.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5등급 대 이 후반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의 2개 영역 정도만 공부하여 전문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하자.

일반 학생의 수시모집 지원 전략



교과 성적이 2등급 대 이하인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대교 교과 성적 관리를 잘하여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수학 · 과학 · 영어 등에 특기가 있는 수험생들은 특기자 중심 전형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가세히보기 Click



## 대입정보 &gt; 입학사정관제

## 입학사정관제

## ‘달라지는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 1.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모집 선발비중 확대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수시모집 선발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자원을 받고 있는 60개 대학의 경우 2012학년도에 수시모집 비율이 92.6%에서 2013학년도에 94.6%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모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대학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사기별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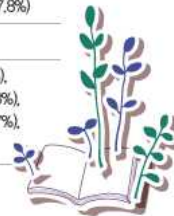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12학년도	30,404	92.6	2,447	7.4	32,851
13학년도	33,399	94.6	1,923	5.4	35,322

(정부지원대학 60개교 통계 자료임)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학별 수시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이 29개교로 2012학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012학년도 30% 이상 대학 12개교 → 2013학년도 30% 이상 대학 29개교)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서울대, 울산과기대, 진주교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7개 대학은 수시모집 전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별 수시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선발비율	대학수	대학명
100%	7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서울대, 울산과기대, 진주교대, 카이스트, 포스텍
70%이상-100%미만	4	꽃동네대(97.5%), 부산교대(94.6%), 서울여대(71.9%), 한동대(97.8%)
40%이상-70%미만	3	강원대(53.2%), 서울사립대(42.2%), 한림대(53.8%)
30%이상 - 40%미만	15	기톨릭대(38.7%), 간국대(34.4%), 경화대(33.6%), 동국대(38.8%), 동아대(30.0%), 부산대(39.8%), 성균관대(32.9%), 성신여대(31.3%), 숙명여대(35.4%), 순천향대(36.6%), 아주대(33.5%), 인하대(34.7%), 중앙대(33.1%), 충북대(33.4%), 한양대(32.9%)



## 2.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 확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수시모집 전형을 확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수시모집인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7학년도에 처음으로 정시모집 인원을 추월(51.5%)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2011학년도 60.7%, 2012학년도 62.1%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으로 수시모집 비중은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학년도에는 총 모집인원(375,695명)의 62.9%를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게 되어 2012학년도 보다 비중이 확대되었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도 2012학년도 121개교(42,163명)에서 2013학년도 123개 대학(43,138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한 선발비율은 2012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 대비 10.8%에서 2013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 대비 11.5%로 확대되었다.

각 대학들이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12년 8월 이전까지 부분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제출서류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 확대

2012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학생 제출서류에 대한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대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협에서는 2012학년도에 정부지원 대학 60개교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2013학년도 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확대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들은 서류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는 작성 시 진솔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표절 등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인성분야 평가 강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인성분야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2013학년도 전형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 공통 자원양식에 인성 항목이 강화될 예정이며, 고교DB시스템에 인성교육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형 참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학년도 수시전형 전에 변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을 통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세히보기 Click

## 대입정보 &gt; 정시모집

# 정시모집!

## 방향잡고 공부하기



### 1.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많다!

수시모집 지원에서 합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시모집 지원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경쟁률이 정시모집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또 수시에서 중요한 학생부 성적은 이미 1,2학년 것이 산출되었고, 스펙 등도 고3 시기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시모집 준비가 된 학생들에게는 패자 부활로 대입수능능력시험 공부에 올인 할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방식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우선선발 전형이 있는데, 이 둘은 구별해야 한다. 수능 100% 전형은 정시모집의 특정 모집 군에서 수능 성적만을 활용하여 전체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수능 우선선발 전형은 정시모집의 같은 군의 모집 시기에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은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등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능우선발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2013정시모집의 대학별 일반전형 기준 인원 변화를 보면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683명보다 417명이 증가한 1,100명으로 전년대비 61.1% 증가한 인원을 모집하며, 이화여대의 경우 27.9%증가한 1,246명을 정시에서 모집한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전년도 1,212명보다 569명이 감소한 643명을 모집하여 전년대비 46.9%로 대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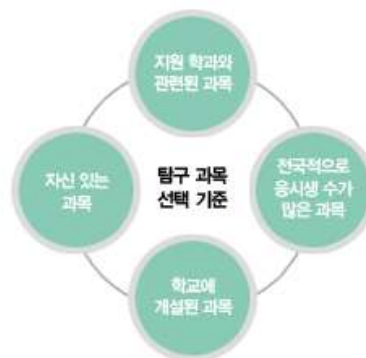
### 2. 대입수능능력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자



급변도 수능은 2012년 수능과 같이 EBS 연계율 70%, 각 영역별 만점자 1% 유지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쉬운 수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쉬운 수능이 현실화된다면 한 문제로 인해 수시모집에서는 등급이 하락하여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정시모집에서는 본인이 지망한 대학이나 학과에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BS 교재로 수능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문제풀이식의 공부보다는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답노트 정리를 통한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시험 대비는 집중과 선택이다.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 총 5개 영역 중 대학별로 반영하는 영역수가 다양한데, 5개 영역으로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뿐이다.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은 인/수/외/탐 4개 영역을 주로 반영하며, 중하위권 대학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일부 대학의 경우 2개 영역,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수리 포기 여부는 수리에 자신 있느냐 보다는 인/외/탐이 평균 5등급 이상이면 수학을 못해도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러나 인/외/탐이 평균 5등급 이하라면 수학을 잘해도 인/외/탐에 집중하는 것이 정시모집에서 지원 폭이 넓어질 것이다. 자신의 학업 능력에 맞게 2+1, 또는 3+1방식, 탐구 과목의 적절한 선택 등 맞춤형 공부를 하는 것이 대입수능능력시험의 대비가 된다.



자연계 학생은 수리 가형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 나형을 허용하더라도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수리 가형을 필수로 지정해 놓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탐과 과탐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 중,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자.

정시모집은 결국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 서울대나 교육대, 또는 의과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이 탐구 과목을 3과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탐구 과목은 2과목 ~ 1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사탐 대신 제 2외국어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또한 탐구 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은 표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백분위에 기준을 두고 각 대학들이 보정점수를 부여한다.

[자세히보기 Click](#)



메인으로 | 주요일정 | 주요뉴스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입학사정관제 | 고교연계 | 진로·진학상담 | 학과소개 | 캠퍼스 | 상담사례

상담 > 대입상담 주요사례

## 대입상담 주요사례

### 수시모집에서 6회 지원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2012학년도 수시모집까지는 무제한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수험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6회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하게 된 배경은

- 학생** 본인의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시 개에 이르는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부담 호소
- 학부모** 전형료 부담, 고액 논술학원비 등 수시 사교육 부담
- 교사** 추천서 작성 등 수시전형 관련 과중한 업무
- 대학** 수시 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로 인한 입시 관리의 어려움

중복지원에 따른 대학별고사 응시로 인한 고교 수업 결손, 다수의 중복합격자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시모집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은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특수목적대학 각종 학교는 제외)의 전형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즉 1개의 대학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는 각각을 지원한 횟수로 산정합니다. 특히 정원내 뿐만이 아니라, 정원외 특별전형(재외국민(순수와국민 전형은 제외), 농어촌 특별전형 등)도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물리텍대학·사이버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이중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름)

※ 이중등록과 입학전형방법을 위반한 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